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청정海의 부산

BUSAN URBAN PLANNING MAGAZINE

2020 July

부산도시계획 아고라
www.busan.go.kr/build/agora

BUSAN U²

vol. 28

부산도시계획정보지

부산 유 스케어(Busan U²:Busan U Square)는 부산도시계획정보지의 별칭으로 부산의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부산에 사는 당신(you:U)이 만나는 광장이며, 접합점(X)을 표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2020. 7 (통권 28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대표전화 : 051-888-2475



부산도시계획정보지

BUSAN URBAN PLANNING MAGAZINE

2020 July
vol.28

CONTENTS

03
특집
도시, 그리고 감염병

06
정책동향 I
국제관광도시

09
정책동향 II
소규모 도시재생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

12
도시계획사
대천마을과 화명신시가지

15
알기쉬운 도시계획
토지수용제도

18
법령 제·개정 소식

2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2
부산도시계획정보지
설문조사 결과

도시, 그리고 감염병

● 감염병과 인류 문명

도시는 지금의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에 모여 살게 되면서 상업과 기술이 발전했고 인류 문명을 위해서는 도시가 꼭 필요했다.

그러나 도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단점 역시 존재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감염병이 더 쉽게 전염되었던 것이다. 지난 수천년 우리 인류 문명은 감염병과 싸우며 세워졌다. 역사 속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인류 문명 또는 도시계획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이 많다.

감염병 때문에 초기 문명은 건조 기후대에서 발생했다. 건조한 기후는 감염병과 세균성 질병의 창궐을 막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구 건조 기후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였고, 나일강 하구 건조 기후대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다.

고대 이집트의 염장 기술은 미라 문화를 만들었다. 발효 음식은 더 멀리까지 음식을 배송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더 오랫동안 음식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발효 음식 기술을 가진 집단은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서 더 넓고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집단의 생존 확률도 높일 수 있었다. 건조 기후에 풍부한 소금은 감염병과 질병에 강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덕분에 고대에는 이런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졌고 최초 문명이 발생하였다.

● 근대이전 도시와 감염병

감염병에 취약한 시기인 전쟁 상황에서는 물을 끓여 먹는 가장 기본적인 보건위생도 챙길 수 없었다.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증식하고 군인들의 신체를 감염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고대 아테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원전 430년부터 426년까지 아테네에 강력한 감염병이 돌았다.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2년 후 아테네의 승리가 눈앞에 있을 시점에 아테네를 강타하였다. 이는 아테네의 항구이자 식량과 물자의 원천인 피레우스를 경유해 아테네로 들어왔다. 이 감염병은 장티푸스로 3년간 성벽 내 주민의 1/3을 사망시켰다. 심지어 지도자인 페리클레스가 사망해 아테네는 다 이겨놓은 전쟁을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테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황폐해졌다.

고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전투 중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감염병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위대한 장군들을 칭송하는 전쟁의 역사는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과거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가장 훌륭한 장군이나 무기를 가졌던 군대가 승리하지는 않았으며 가장 지독한 병원균을 적에게 퍼뜨리는 군대가 승리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전쟁으로 인한 감염병 외에 인류 역사를 바꾼 감염병 중 하나로 페스트가 있다.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인 감염병으로 꼽힌다. 페스트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공중위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는데, 페스트가 인류 역사상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역사 기록으로는 6세기 독일과 동로마제국에서 창궐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세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로 인해 17세기까지 전 세계 약 2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자가 줄고 중세 유럽사회의 봉건제를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다.

페스트는 쥐에서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위생이 좋지 않았던 당시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시체와 환자가 쓰던 물건을 불태우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책이었다. 당시에는 현재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상하수도, 일조, 채광 등의 기준을 갖지 못한 도시의 고밀화가 필연적이었기에 도시의 위생환경은 비참했다. 이에 공중위생법이 생기고 주거지와 오염원을 분리하는 등 공중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계획 기준들이 기원하게 되었다.



〈피테르 브뢰헬의 '죽음의 승리'(흑사병에 의한 사회를 표현)〉

● 근현대 도시와 감염병

근대 이후 도시의 감염병 문제를 도시의 물리적 변화 및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던 일이 런던에서 먼저 일어났다.

17세기 당시 영국 도시 지역의 사망률은 시골 지역의 사망률보다 훨씬 더 높았으며, 18세기 초 유럽에 황열병이 도래했고, 콜레라도 1830년까지 서유럽 도시들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피해가 점점 커지자 영국의 애드워드 1세는 도시위생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그 누구도 도시 내에 배설물, 거름, 혹은 다른 오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한다. 배수로에 천과 아마포를 넣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나무줄기나 목재가 들어갈 경우 신속히 제거할 것을 명한다. 대변은 신속하게 치울 것이며, 배수로는 수시로 청소하라. 또한 도시 네 구역에 각각 공중화장실을 둘 것을 명한다."

도시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중위생법은 영국에서 1848년 만들어져 법적 규제에 의해 시가지 환경의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각국에 전파되었다. 이후 근대 도시계획법 제도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초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공중 보건 조치들은 주로 격리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854년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존 스노우(John Snow)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 지점과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한 질병지도를 제작함으로써 도시계획을 통해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당시 존 스노우는 콜레라 발생 지점들을 연구한 끝에 특정 물 펌프가 있는 곳에서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문제의 우물은 오염된 배설물이 든 인근의 오물토에 의해서 오염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물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자 콜레라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 존 스노우는 콜레라 박테리아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콜레라가 오염된 물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고 믿었다.



〈존 스노우의 질병지도〉

존 스노우의 연구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초기 증거 역할을 했는데, 건강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도시의 혁신', 다시 말해서 도시는 자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조선시대의 위생개선

조선에서도 공중위생 문제를 인식하고 도시계획을 통한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제가는 자신의 저서 '북학의'에서 조선시대 당시 한양도성의 거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나라는 똥을 말려서 사용하니 효력이 흩어져 완전하지 못하다. 도성의 똥을 다 수거하지 못하여 악취와 오물이 길가에 그득하고, 하천의 다리나 석축에 덕지덕지 말라붙어 큰 장마가 오지 않으면 씻기지도 않는다. 개똥이나 말똥이 항상 뒤덮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 논밭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똥이 이미 넘쳐나니 재는 모조리 도로에 버려 바람이 조금만 일어도 차마 눈을 뜰 수 없고, 휩쓸려 나부껴 모든 집의 음식물을 불결하게 만든다."

박제가의 글을 미루어볼 때 이미 하천은 인분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음용하는 도성민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미쳤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 안전한 상수원 확보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최대 인구 20만이나 되는 한성부 백성이 거주하는 공간에 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됐고, 구한말인 1906년 공중화장실을 각처에 증설하였다는 '승정원일기'의 글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 1800년대 후반 대한제국 시기에 도시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치도사업이 시행됐다.

한성부에서는 "지금 사대문을 통하여 다니는 큰길은 정부에서 수리하거니와 각 동리의 거리와 작은 골목길은 그 동리에서 수리하되 길과 문 앞을 편리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 훈령을 받들어 방을 붙이니 인님들은 다 알고 준행하여 어김이 없게 하라"고 동네마다 방을 붙였었다.

도시개조사업은 크게 도로 및 하천정비, 새로운 중심 건축물 축조, 공원 조성, 서구적 시설 도입, 산업지역 설정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때 최초의 도시공원인 탑골공원이 등장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의 대한제국시대 도시계획 저서에 따르면 탑골공원은 궁궐 내 정원과 달리 도시의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이 되는 도시공원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 위생을 개선한 사례였다.



〈고종의 도시개조사업계획〉

● 향후과제

이와 같이 긴 역사 동안 감염병에 대하여 인류가 대응하는 수준은 점차 향상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듯 감염병 역시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교통이 발전하면서 감염병의 전파 속도 역시 빨라졌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질병, 특히 바이러스에서 유래하는 감염병은 다시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확장에 따라 증가한 인구는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면서 그곳에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던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인간과 급속히 가깝게 되었다. 일단 도시로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다양한 질병의 형태로 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여기에 고속철도와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속도가 빨라졌고 범위가 확장되면서 감염병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계로 단시간 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우리가 연달아 경험하고 있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오미애(2020)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도시의 공간구조와 이용형태의 변화는 단기적이기보다는 영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향후 미래 도시의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면서 새로운 도시모델로서의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의 대도시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개별 단위는 자족적이고, 에너지 자립적인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망보다는 개인교통수단의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신교통수단의 출현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드론택시나 자율주행차량의 지하도로 등 집단이용 시스템이 새로운 인프라로 출현할 수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는 과연 감염병의 역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연이은 감염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혼란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확신은 흔들리고 있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빛나는 소수의 대도시, 그리고 사막같이 황폐해지는 나머지 지역의 양극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규모 감염병의 잇단 발생은 도시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토연구원, 2020.「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방향」, 국토이슈리포트 제17호
에드워드 글레이저, 2011,「도시의 승리」, 해냄출판사
오미애 외, 2020.「공중위생과 도시계획(Ⅰ)-도시와 감염병-」, 도시정보지 NO.457
유재형, 2020,「과거 유럽도시의 공중위생과 조선의 위생 개선 사례」, 도시미래신문(www.ufnews.co.kr)
유현준, 2020,「백신 예방주사가 만든 현대 도시」, 유현준 네이버블로그
최준영, 2020,「전염병과 대도시」, 아시아경제(www.asiae.co.kr)
WHO 홈페이지, www.who.int,「Coronavirus disease situation reports」

〈2000년 이후 발생한 감염병 비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최초 발생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	2009년 3월 멕시코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바이러스 종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A형 독감의 일종인 H1N1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시기	2002년 11월 ~ 2003년 7월	2009년 4월 ~ 2010년 8월	2015년 4월 ~ 2015년 12월	2019년 12월 ~ 2020년 현재
감염자	전체 8,000여 명 한국 4명	전체 163만여 명 한국 11만여 명	전체 1,500여 명 한국 186명	전체 806만여 명 한국 1만 2,189명
사망자(치사율)	800여 명(약 10%) 한국 0명	1만 9,000여 명(약 1%) 한국 260명(0.24%)	600여 명(약 35%) 한국 36명(20%)	43만 8,051명(약 5.4%) 한국 279명(약 2.3%)

2020년 6월 17일 기준(WHO Situation Report)

국제관광도시

최신의 도시정책 및 이슈 등을 소개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국제관광도시

우리나라는 2019년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시는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가장 우수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문도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인천을 따돌리고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지역관광거점도시로는 전주 • 목포 • 강릉 • 안동시가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기점으로 핵심사업 33개, 전략사업 19개, 연계사업 5개 등 총 57개 사업에 5년간 1,500억 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관광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여행 장벽이 없는 편리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 60%,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 세계 7위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 핵심사업

○ BUSAN, Another Korea 브랜딩

■ 기본계획 및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슬로건 로고 개발 등

■ 대형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도시 브랜딩

– 국제스포츠, 전시 등 대형행사 유치를 통한 도시 브랜딩

– 2030 EXPO 유치 활동 및 개최를 통한 브랜딩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 국제관광네트워크 연계 도시 브랜딩

– 한 • 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 한 • 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아세안 유학생 융 • 복합 거점센터 건립 등

– 한 •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및 패션쇼 등 행사 개최, 아세안 국가와 경제교류 및 협력 확대

■ 부산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 부산의 대표 콘텐츠의 특성과 슬로건을 담은 관광상품 발굴, 판매



〈LPGA 인터내셔널 부산〉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 전략적 홍보 • 마케팅

■ 해외 매체 홍보

– 현지 TV • 매거진 등 홍보

■ 촬영지원

– 영화 • 드라마 촬영 등 한류를 통한 홍보

■ 아세안 국가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및 현지 오프라인 마케팅

– 국가별 단계적 추가 설치(4개소)

– 현재 5개소 운영중(타이페이, 오사카, 베이징, 방콕, 말레이시아)



〈영화 블랙팬서 – 광안대교 촬영씬〉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 – 아홉산 숲 촬영씬〉

○ (Dynamic) 도심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 Beach Life와 함께하는 일상체험 콘텐츠 개발

– 맛집, 카페, 야경, 걷기, 레저 투어 등 개발



〈황령산 야경〉



〈미포철길〉

■ 광안대교와 해안 갈맷길을 연결한 걷기 코스 개발

– 정기적으로 광안대교 상판 개방(주 1회)

– 번지점프 등 관광상품 개발



〈광안대교 걷기 행사〉



〈남아공 블루크란다리 번지점프〉

■ 최신 해양관광 콘텐츠 도입 및 관광상품 다양화
- 수륙양용버스, 해상택시(버스) 등 최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 수영강 리버크루즈 연계 LED 페스티벌 개최


〈수륙양용버스 운영〉


〈수영강 리버크루즈〉

○ (Fantastic) 사계절 다양한 축제와 MICE
■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
- BIFF 레드카펫, 아시아콘텐츠어워즈 갈라쇼 관광상품화
- 영화와 여행, 음식, 이벤트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영화제 개봉 영화를 아시아 15개국 언어로 번역 제공

■ 시 대표축제 캐릭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불꽃축제 등 축제 캐릭터 개발 및 축제기념품 판매 전용 사이트 구축

■ 사계절 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
- 계절별 부산의 매력을 담은 축제와 문화행사 빅데이터를 통한 외래 관광객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투어코스 개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 (Unique) 세계 유일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
■ 산복도로 마을 관광상품화
- 호천마을, 이바구길, 40계단 등 산복도로 계단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 감천문화마을 관광콘텐츠 개선
- 전망대 리뉴얼, 하늘극장, 어린왕자 특화존 조성

■ 피란수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피란촌 세트장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피란수도 부산 홍보관 운영
-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콘텐츠 운영

■ 평화관광 상품 개발
- 6·25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
- 유엔위크 인 부산, 턴투워드 부산 등 6·25전쟁 관련 평화 콘텐츠 개발


〈초량 이바구길〉


〈유엔기념공원〉

◎ 전략사업

○ 혁신적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 부산형 관광플랫폼 TaaS 구축
- TaaS(Travel as a Service)는 ICT 기술 기반의 관광과 모빌리티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관광안내, 숙박 및 관광상품 구매 결제시스템, 교통서비스 등 제공

■ 부산형 WI-FI 보급 확대
- 주요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 705대 설치

○ 자유롭고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
■ 주요교통시설 주변 대중교통 안내유도선 설치
- 도시철도, 버스, 택시 탑승 편의를 위해 바닥에 안내유도선(교통수단별 고유색 부여) 설치

■ 주요 관광지 내 다국어 안내표지판 정비
- 감천문화마을 등 관광지 다국어 표지판 신설 • 정비

■ 부산 관광패스 개발
- 관광패스를 이용하여 인기관광지 • 쇼핑 • 공연 등의 할인 서비스 제공

■ 실버자원으로 운영되는 상설 관광안내소 운영 확대
- 주요관광지 주변 관광안내소 100개 확대 운영

■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 • 숙박 등 수용태세 사업 통한 불편 개선
- 택시 내 다국어 통합 안내메뉴얼 비치
- 버스 정류소 노선도 외국어 병기
- 스마트 외국어 메뉴판 앱 개발 보급
-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
- 쇼핑 • 숙박 • 식당 등 업소에 대한 부산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 통영시 사례〉



〈관광패스 – 서울시 사례〉

○ 혁신성장 하는 부산형 관광생태계 조성

■ 부산관광 데이터 분석 조직 신규 운영

– 부산관광 통계 수집 • 분석, 관광객 실태조사

■ 4차 산업형 부산 관광 • MICE 강소기업 육성

– 기업 육성 지원 및 인력 양성, 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친화 여행문화 개선

■ 범시민적 외국인 환대 • 친절 캠페인 전개

– 라디오, 방송, 온라인을 통한 부산시민 및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외국인 환대 • 친절 필요성 안내 등 캠페인 전개

■ 관광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및 의식 개선 교육

– 외국인 관광객 환대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 관광 성수기 관광객 환대 주간 운영

– 온라인 사전 이벤트,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에 환대 이벤트 운영 등

■ 부산 관광영향평가제 도입 • 운영

– 관광 정책 사전심의제 도입하여 관광사업 추진 시 관광인지적 접근 강화로 사업효과 제고하여 관광객 관점의 정책 기획 점검

◎ 연계사업

○ 부산형 모빌리티 플랫폼(MaaS) 구축

■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다양한 교통수단(자동차, 자전거, 카풀, 카셰어링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경로설정, 예약, 결제의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제공

○ 시티투어버스 운영 개선

■ 부산시티투어 내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안내시스템 구축

■ 미디어 파사드 등 특화 디자인 및 ICT 시스템 설비

■ 부산시티투어 연계 지역 내 관광, 먹거리 통합형 상품 개발

○ 도시재생 연계 관광생태계 조성

■ 부산 도시재생사업 관광육성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주민사업체 운영 지원, 관광 PD 발굴 및 역량 강화

■ 관광육성 추진위원회 사업추진

– 관광PD 역량강화, 주민사업체 선정 지원 및 창업 • 경영 • 회계 등 컨설팅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내부자료
부산관광포탈, www.visitbusan.net/kr/index.do



〈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기본구상도〉

소규모 도시재생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

2020년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역·초량동 일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9년까지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총 23곳)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0년도 '소규모 재생사업'에 3곳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3곳은 부산진구 범천동, 해운대구 반여동, 금정구 장전동으로 쇠퇴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편의공간 개선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단기간(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뉴딜 본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 성격의 '뉴딜 맛보기' 사업이다.

◎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르네상스 (부산진구 범천동)

☞ 마을길 정비, 비상소화 장치함 설치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 공동체 유대감 강화

▶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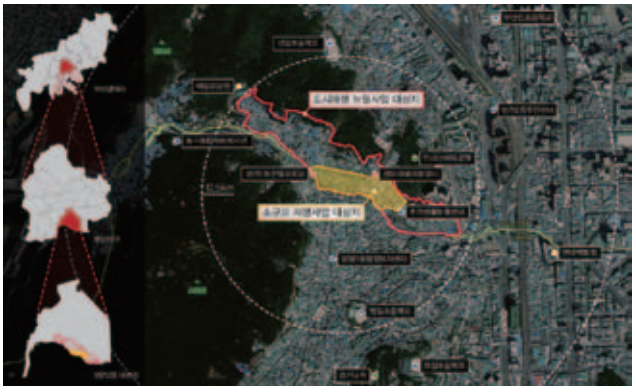


▶ 추진전략



▶ 주요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호천평안길	• 안전하고 보행에 편리한 골목환경 개선
미니소방서	•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빈 공터 확보 • 일체형 소화 장치함 업체 선정 후 공사 시행
이벤트 카페	• 마을자원을 활용한 이벤트 카페 운영 • 주민 대상 파티플래너 교육 시행 • 기존 마을 인프라를 활용한 이벤트 카페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성 및 수익성 타진 • 지속가능한 마을사업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 검토
마을 관리단	• 활동역량을 갖춘 청장년층 주민 모집 • 자발적인 참여와 추진이 가능한 주민으로 구성된 '호천 마을관리단' 출범 • 마을사업화 + 공공서비스가 결합된소셜벤처로서의 가능성 타진
호천공동체 미디어 스튜디오	• 공동체 미디어 기획 및 제작 교육 • 소식지, 라디오, 영상 제작 • 'Made in 호천' 미디어 콘텐츠 확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속닥속닥 삼어발전소 (해운대구 반여동)

☞ 마을의 주민편의공간 개선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 도시재생 실현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주요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지혜의 샘	• 독서 문화 공간 조성 • 초등학생 대상 독서 지도 프로그램 • 주민 독서클럽 모집 및 운영 • 세대 격차 해소 및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속닥속닥 삼어 작당소	• 마을사랑방 조성 • 주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카페 • 주민 화합 토론회, 문화강좌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삼어마을 축제 '삼합'	• 독서문화축제,공연 • 나눔장터, 플리마켓 • 주민화합프로그램 운영



◎ 부산대학로 생생활력 UP! (금정구 장전동)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극복과 지역상권 및 주민협의체 활성화 등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발적인 계획수립·시행, 마을문제 해결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 동력 확보

▶ 비전 및 목표

부산대학로 생생 활력 UP!

-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로 활력 회복
- 유입 인구 증가를 통한 이색 명소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
-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및 마을축제 등 볼거리 제공

▶ 추진전략

- 청년 복합문화상업기능으로 변화 유도
- 만남의 장소 및 추억의 장소 이미지 구축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 기반 구축

▶ 주요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빛 거리 (금빛누리길) 조성	• LED 조형물 설치, 방문객 유입 증가 유도 • 대학로, 젊음의 거리 등 활력과 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
장전 아카데미 운영	•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운영 • 차 없는 기간(토, 일요일) 운영관광객 또는 방문 객 유입 증가 유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마을 축제 개최
	• 상인(주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빛 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 발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수영 : 도도수영)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에 선정되었던 수영구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수영(도도수영)'이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0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 주민생활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기존 뉴딜사업지역의 지역여건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실현가능하고 주민체감도 높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수영동(수영사적공원) 일원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측정·방역 환경분야와 전기자전거, 유동인구 분석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주민편의와 상권활성화 등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것이다.

◎ 도도수영 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내용

▶ 유동인구 분석 ①

구 분	내 용
위치	• 좌수영성 스마트 둘레 네트워크 대상지
규모	• 유동인구센서 등
목적	• 유동인구 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내용 (예시)	• 유동인구 측정 센서 설치 후 유동인구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 ②

구 분	내 용
위치	• 좌수영성 스마트 둘레 네트워크 대상지
규모	• 미세먼지측정기 등
목적	• 실시간대기환경정보를 알림 신호등, 홈페이지, App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제공
내용 (예시)	• 미세먼지측정 센서 설치 후 실시간 대기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거/전통시장 스마트 방역 ③

구 분	내 용
위치	• 좌수영성 공원 및 대상지 내 주거지
규모	• 스마트 모기 포집기 등
목적	• 지역별 상황 실시간 감시 및 측정, 대상지 및 지역 일대 방역
내용 (예시)	• 해충 및 유충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포집기 설치 후 실시간 개체 수 측정 및 데이터 기반 방역계획 수립

▶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형 공공전기자전거 ④

구 분	내 용
위치	• 좌수영성 스마트 둘레 네트워크 대상지
규모	•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
목적	• 기존 관광루트「굴러가길」과 스마트 둘레 네트워크 방문객과 주민 대상 공공전기자전거 대여
내용 (예시)	• 기존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확장·개선을 위한 공공전기자전거 설치 및 운영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총괄도〉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등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대천마을과 화명신시가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의 역사와 변화상을 소개한다.

애기소의 전설이 깃든 도심속 하천 "대천천"

금정산에서 흘러내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 중에서 수량과 길이가 가장 큰 냇물이 북구에 있는 대천천이다. 대천천의 이름은 조선시대 양산군지의 기록에 보면 금정산수로 되어 있어 금정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 1910년 간행된 조선지 자료에는 대천으로 되어 있는데 8·15 광복 후 대천리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을 마을 이름과 구분하기 위해 대천천으로 했다. 대천천은 고당봉 북문재에서 발원한 물과 상학산 줄기에서 발원한 물이 합류하여 넓은 시내를 이룬 큰 냇물(대천)이 마을 한가운데로 흘러내려 대천마을이란 자연 부락을 만들었다. 8·15 광복 후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 화명리 대천마을로 있다가 1963년 부산직할시 편입으로 부산진구 화명동 대천마을이 되었다. 그 후 1978년 북구가 분구되면서 부산진구에서 북구 관할로 바뀌었고, 2003년 7월 화명동은 화명1동과 2동으로, 그해 12월 화명1동은 다시 화명1동과 3동으로 분동되었다.

대천리의 상징인 큰 냇물은 수량이 풍부하여 많은 웅덩이를 이루었는데 웅덩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 여름에 피서지로 많이 찾고 있는 애기소(沼)이다. 애기소에는 슬픈 전설이 있는데, 화명 일대에 살던 젊은 부부가 결혼 후에도 태기가 없어 고민을 하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 넓은 못이 나오자 그 옆 너럭바위에서 천지신명께 백일기도를 드렸다. 백 일째 되는 날, 선녀가 나타나 원래 부부는 아기가 없을 운명이나 정성이 갸륵하여 아기를 점지해 주겠다고 말하며, 삼 년 뒤 다시 아이를 데려가겠노라 덧붙였다. 그 이듬해 생긴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부부는 하루하루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몰랐지만 마음 한 구석에 선녀가 아기를 데려갈 거라는 무거운 불안 또한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삼 년이 지나도 아기가 무사하여 보이자 아내는 또 한 번 정성에 감동하여 아기를 살려준 줄 알고는 선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못을 다시 찾는다. 아내는 아기를 너럭바위에 잠시 앉혀둔 채, 다시 찾은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다. 그런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울며 찾아 헤맸지만, 아내는 결국 아기를 다시 찾지 못했고 그 뒤 사람들은 이곳을 아기가 빠져 죽은 소라고 하여 애기소라고 부르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애기소는 북구 최고의 피서지였지만 지금은 여러 공사와 심한 폭우로 인해 떠내려 온 바위들로 덮혀 옛날의 정취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름 피서철이면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은 물론이며 사상구 등 타 지역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속 자연물놀이 장소로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의 금정산, 화명생태공원, 화명수목원 등 주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며 인근 화명수목원 녹지공간과 산성로 연결 산책로를 재정비하는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또 하나의 도심 힐링공간이 되고 있다.



〈대천천 애기소〉



〈대천천 누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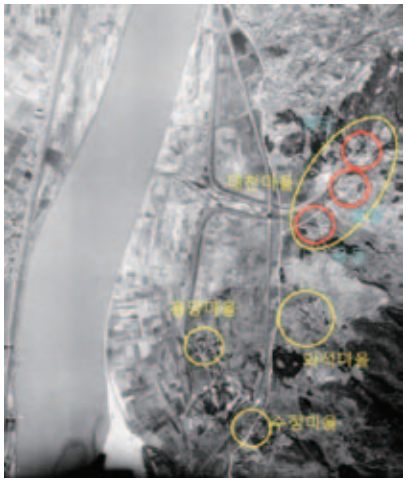


〈화명수목원〉



〈대천천 물놀이〉

농촌마을에서 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



〈1948년 4개의 자연마을〉



〈2019년 화명동 행정구역〉

북구 화명동은 약 500년 전 파평 윤씨가 자리 잡은 뒤 임, 양, 허, 권씨 등 12개 씨족이 모여 살았던 집성촌이었다. 원래 화명동은 지형적으로 동쪽에 있는 화산(華山)과 대천계곡을 끼고 낙동강을 내려다보며 넓은 들을 이루고 있는 4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대천천이 흐르는 곳에 대천마을이 있는데 그 영역은 지금 화명2동과 거의 일치한다. 대천마을은 과거 화명동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으며 양달(양지), 음달(음지), 용동이라는 세 개의 취락을 이루었다. 현재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명인 양달로는 여기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남쪽으로 화명의 중심에 위치한 와석 또는 화잠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와석마을은 큰 돌이 누워있는 모양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는데, 현재는 산성터널과 연결되는 와석지하차도가 위치한 곳이다. 그리고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유명한 정자나무가 있었던 수정마을이 있는데,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수정역 부근이다. 수정마을이 있던 자리에 건립된 수정강변마을이라는 대단지 아파트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마을 앞쪽에 용이 길게 누워있는 듯한 지형을 이룬 용당마을이 있는데,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근처 용당공원이 위치한 곳이다. 와석마을은 화명1동에, 수정마을과 용당마을은 화명3동에 속한다. 대천마을과 용당마을에는 주로 윤씨들이 많이 살았으며, 와석마을에는 임씨, 윤시, 양씨, 그리고 수정마을에는 허씨가 많이 살았다.

1930년대 250여 세대였던 화명동은 1970년까지만 해도 37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화명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입지하면서 마을의 모습이 변해갔다. 먼저, 대천마을의 양달 뒷산에 고아원(1972년)과 양로원(1975년)이 자리를 잡았으며, 1975년에는 대천마을 음달 산답(山畓)에 화명정수장이 들어섰다. 화명정수장은 원래 와석마을 뒤편에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와석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반대하였고, 계획이 변경되어 대천마을로 결정되자 대천마을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저항이나 반대없이 수용하였다고 한다.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화명동에는 마을마다 매년 당제를 지내는 고당이 있는데, 1971년 화명정수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고당곡에 있었던 대천마을의 당산 고모당(고당 할매집)은 대천천 옆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1978년에는 화명정수장 건너편에 한국전력 북부산변전소가 들어섰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1970년대는 기업들도 부산의 외곽지역인 화명동으로 이전하였는데, 1978년 흥아공업(유)이 이전해 왔으며 1984년 만호제강(주)이 부국제강(주)을 흡수합병하면서 본사를 화명동으로 옮겨왔다. 산업시설의 입지는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197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산 도심의 인구로 인해 화명동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화명동에는 대단위 주공, 시영아파트가 지어졌고 일반 아파트까지 가세하였다. 1981년 4,100세대의 화명주공아파트, 1988년 360세대의 화명시영아파트가 건립되었으며, 사립화명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1987년 480세대의 우신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아파트단지 속 대천마을

1988~1989년 북구에는 12개의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었고, 논과 밭, 구릉지나 산비탈, 공장 부지, 그리고 자연마을들이 사라졌다. 먼저 대천마을 용동(화명1택지개발지구)에서 주거지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1987년 해당 면적의 절반 이상을 단독주택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소형 평형의 저층아파트(480세대)가 건설되었다. 이어 1990년대 화명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천마을 양달 주변(화명3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초기 택지개발사업은 대천마을 용동지역처럼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공기단축, 시공용이, 원가절감, 공간효율 증대 등을 내세우며 양달 주변 지역처럼 아파트단지로만 대량 공급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미개발지로 여겨졌던 농촌마을은 개발과 발전의 논리에 따라 도시의 주거공간으로 변해 아파트단지로 채워졌다. 와석(화잠), 수정, 용당마을은 아파트 건설로 거의 사라졌다.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화명동은 본격적인 아파트촌으로 변해갔다. 화명2동의 화명3지구에는

1995~1998년 7개의 아파트가 대천마을을 둘러싸며 차례로 준공되어 4,474세대가 입주하였으며, 화명1동의 화명4지구에는 1999~2003년 5개 아파트, 총 2,146세대가 공급되었다. 화명2지구에 포함된 화명3동에는 2001~2004년 7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지어져 9,981세대가 들어왔다.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일대로 상가지역이 형성되고 교통시설이 확장되었다. 1998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 화명역, 수정역이 들어서고 택지지구 중심을 관통하던 경부선 철도노선 4.8㎞가 이전하게 되었으며 경부선 화명역이 증축되는 등 전혀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다. 교통시설의 발달은 도시공간의 확장을 가속시키는 중요요인이 되어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1998년 화명4지구 남쪽에 위치했던 흥아타이어 공장터에 3,382세대 규모의 흥아대림타운이 준공되었고, 2002년 흥아대림타운 남쪽에 있던 만호제강, 부국제강이 떠난 공장용지에 2004년 동원로얄듀크, 2007년 롯데캐슬맴버스가 지어졌다. 이후 문화시설, 체육여가시설 등도 들어서게 되는데, 2007년 2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1분관인 부산어촌민속관이, 2010년 2월 화명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화명수목원, 9월 화명생태공원이 준공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 속에 농촌 자연마을의 흔적은 사라지고 대천마을 단독주택지가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대천천 주변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역시 화명2 재개발 정비사업과 화명3 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해 대부분 철거되었고, 2021~2022년에는 아파트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대천마을과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대천천 네트워크'라는 연대조직을 형성하여 공동체로 지켜온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인 대천천을 도심 속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썩어가던 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바꾸었으며,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쿵쿵어린이집', 방과후학교인 '징검다리놀는아이들', 어린이도서관인'맨발동무', 대천마을학교 등 다양한 교육,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공동체로서 마을의 공생 가치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진 많은 다른 마을과 달리 새로운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



〈화명1택지개발지구〉


〈화명3택지개발지구〉


〈1960년대 대천마을 모습〉


〈2000년대 대천마을 모습〉


〈대천천 프리마켓 모습〉

참고자료

공윤경, 2013,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와 특성 – 부산 북구 화명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제1호, pp.97-110.
공윤경, 2016, 도시화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구성원의 연대 – 대천마을과 대천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제3호, pp.615-62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0,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토지수용제도

도시계획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용어에 대하여 소개한다.



토지수용제도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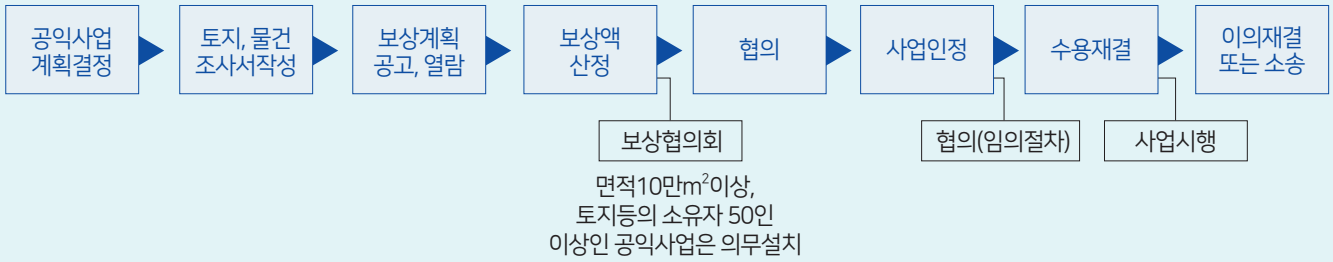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비축,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주택건설사업(주택법)
  -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 ▶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 도로사업(도로법) 등

토지수용 및 수용재결 절차

■ 토지수용절차



■ 수용재결절차



보상기준

■ 토지

▶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

▶ 다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

■ 건물, 기타 지장물

▶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

■ 영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보상

▶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보상

▶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 보상

■ 권리 및 기타보상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지불

▶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

■ 사업구역밖의 보상

▶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 단지나 죽림단지 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수 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 영농손실보상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통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 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아님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 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

수용재결의 구제

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수용신청전에 할 수 있는 일

▶ 수용재결신청청구

-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용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

▶ 잔여지수용청구

-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
-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서 제출하여야 함

■ 수용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방법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

▶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 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 변경

■ 이의신청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 행정소송

- 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신청재결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이의신청재결중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 다툼이 아닌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 · 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
-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도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토지수용제도안내, www.busan.go.kr/build/ahcityaccepts01

법령 제·개정 소식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20. 5. 27.
[시행] 2020. 5. 27.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의2) |

○ 시장의 생활권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계획 수립 시 구청장 및 군수와의 협의를 의무화 및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 하였다.

|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제11조) |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 면적, 연면적, 높이 변경이 포함될 경우 50% 이내의 범위에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제17조의3제2항제3호) |

○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27.
[시행] 2020. 5.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전략거점 육성, 지역균형발전, 지역활성화 등에 이바지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 조례을 정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공공기여 등 용어를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부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제2장 협상조직(제4조~제7조) |

○ 협상에 필요한 조직으로 민간·공공측협상단, 외부전문가, 협상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3장 협상절차(제8조~제19조) |

○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기본구상안 공모 등을 정하고, 제14조에 따라 협상계획에 대해 협상의 시작 및 완료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4장 공공기여 기준(제20조~제23조) |

○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이행과 담보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내용은 부산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 5. 4.
[시행] 2020. 6. 1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3조의2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시설이 아닌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계 시 · 도지사 등은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고 사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을 알려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권자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 등 (제34조) |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 판정할 때 종전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지역의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판정기준을 완화하였다.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지역의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 (별표 2) |

○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변 주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및 보건소 · 보건진료소 등을 추가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 4. 21.
[시행] 2020. 10. 22.

● 건축법」이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 심의하는 대상의 범위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고,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굴착공사의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공지(空地: 공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현행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 제5조의5제1항제8호) |

○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그 심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 굴착공사 또는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 (제19조제6항 신설) |

○ 부실한 굴착공사 또는 옹벽 등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균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였다.

| 건축물의 거실 내부 구획(제61조의2제3호 신설) |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제115조) |

○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제119조제3항 신설) |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의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일자	심의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제3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0.3.25.~ 4.1.)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해제(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진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6.280㎢ ⇒ 12.693㎢ - 대저1동 일원(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0.635 ㎢ ('20.5.15.~'22.5.14.) - 봉림동 일원(둔치도 개발예정지) : 2.664㎢ ('20.5.31.~'22.5.30.) - 강동동 일원(기존 연구개발특구) : 5.837㎢ ('20.5.31.~'22.5.30.) - 대저2동 일원(항공클러스터) : 3.539㎢ ('20.5.31.~'22.5.30.)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13.587㎢ - 명지, 대저2동,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 11.824㎢ - 명지동 일원(명지 예비지) : 1.763㎢	원안가결
제4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0.4.29.)	①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변경결정(안) [증산공원 외 4개소]	• 증산공원(근린공원) : 변경(사유지 제척) - 위치 : 동구 범일동 산81-28번지 일원 - 면적 : A=31,133㎡ ⇒ 27,127㎡ (감 4,006㎡)	원안가결
		• 대연2공원(근린공원) : 변경(사유지 제척) - 위치 : 남구 대연동 산180번지 일원 - 면적 : A=51,000㎡ ⇒ 36,787㎡ (감 14,213㎡)	원안가결
		• 대연공원(근린공원) : 변경(사유지 제척) - 위치 : 남구 대연동 1346-305번지 일원 - 면적 : A=55,227㎡ ⇒ 6,126㎡ (감 49,101㎡)	조건부가결
		• 녹지(7)(완충녹지) : 변경(사유지 제척) - 위치 : 영도구 동삼동 439-1번지 일원 - 면적 : A=232,185.8㎡ ⇒ 4,782.8㎡ (감 227,403㎡)	원안가결
		• 녹지(8)(완충녹지) : 변경(사유지 제척) - 위치 : 수영구 민락동 771번지 일원 - 면적 : A=27,715㎡ ⇒ 188.4㎡ (감 27,526.6㎡)	부결
	② 도시관리계획(방수설비, 연구시설) 결정 (변경, 신설)(안)	• 방수설비는 도시계획시설 면적 산정 오차 정정 및 지적분할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과 국내·외 안전산업 수요 급성장, R&D 투자확대 및 민간산업 기술 애로 해결 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조건부가결
	③ 구서5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A=38,600.1㎡	• 구서5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재심의
	④ 청학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영도구 청학동 135번지 일원] A=19,467㎡	• 청학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재심의
제1회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2020.4.29.)	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두명·부명지구 : 정관읍 두명리 254번지 일원]	• 두명·부명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재심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린다.

일자	심의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제5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0.5.27.)	①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폐지)(안) [대항공원 외 5개소]	• 대항공원(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 시설 종류 변경 – 위치 : 강서구 대항동 162-1번지 일원 – 면적 : A=2,648,568㎡ (면적 변경 없음)	원안가결
		• 녹지(10)(완충녹지) :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외 폐지) – 위치 : 해운대구 송정동 산86-11번지 일원 – 면적 : A=20,935㎡ ⇒ 1,384㎡ (감 19,551㎡)	원안가결
		• 녹지(15)(완충녹지) : 폐지 – 위치 : 경부고속도로변(구서 IC~노포동 시계) – 면적 : A=321,400㎡ ⇒ 0㎡ (감 321,400㎡)	원안가결
		• 녹지(23)(완충녹지) : 폐지 – 위치 : 북구 덕천동 317-1번지 일원(남해고속도로변) – 면적 : A=7,040㎡ ⇒ 0㎡ (감 7,040㎡)	원안가결
		• 녹지(1)(완충녹지) : 폐지 – 위치 : 영도구 청학동 72-2 ~ 동삼동 207-1번지 – 면적 : A=24,293㎡ ⇒ 0㎡ (감 24,293㎡)	원안가결
		• 녹지(-)(완충녹지) : 폐지 – 위치 : 남구 용호동 산 185번지 – 면적 : A=23,145㎡ ⇒ 0㎡ (감 23,145㎡)	원안가결
	② 하단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_재심의 [하단동 605-31번지 일원] A=15,462.3㎡	•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2020.2.27.)에서 재심의 되었던 안건으로 하단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교통처리계획 등)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수정가결
	③ 범천1-2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_재심의 [부산진구 범천1동 851-1번지 일원] A=13,427.1㎡	•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2019.4.24.)에서 재심의 되었던 안건으로 범천 1-2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정비사업의 정비계획(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수정가결
	④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협상조정협의회 조정사항에 따른 자문(안)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A=54,480㎡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된 사항[개발계획(안), 건축계획(안), 공공기여계획(안)] 등을 자문받아 사전협상의 원활한 결과 도출하고자 함	자문
제6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0.6.2.)	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도로 • 녹지)결정(변경, 해제)(안) [두명·부명지구 : 정관읍 두명리 254번지 일원]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조건부가결
	② 202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안) –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일원]	•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연면적 등 결정을 위한 202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재심의
제2회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2020.6.2.)	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_재심의 [두명·부명지구 : 정관읍 두명리 254번지 일원]	•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4.29.)에서 재심의 되었던 안건으로 위원 현장확인, 두명·부명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원안가결
	②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상리취락지구 :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 A=74,360㎡ ⇒ 73,918㎡ (감 442㎡) [구덕포지구 :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 A=31,812㎡ ⇒ 31,309㎡ (감 503㎡)	〈 상리취락지구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미집행시설 정비, 기반시설과 가구 및 획지 등 면적 오차를 정정하여 실효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원안가결
		〈 구덕포지구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미집행시설 정비, 기반시설과 가구 및 획지 등 면적 오차를 정정하여 실효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재심의

부산도시계획정보지 애독자 설문조사 결과

애독자 여러분에게 부산도시계획정보지 개선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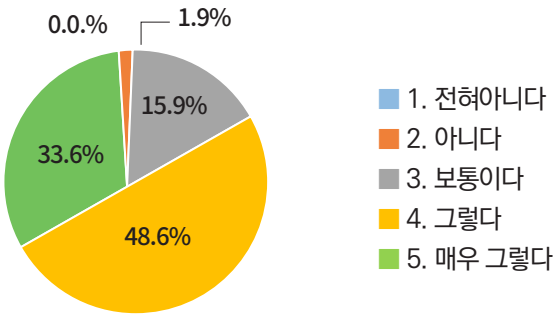
· 설문기간 : 2020. 3. 30. ~ 4. 30.
· 설문방법 : 부산도시계획아고라 ›› 도시계획소통 ›› 설문공간
· 설문내용 : 10문항
· 참여인원 : 107명

■ 설문조사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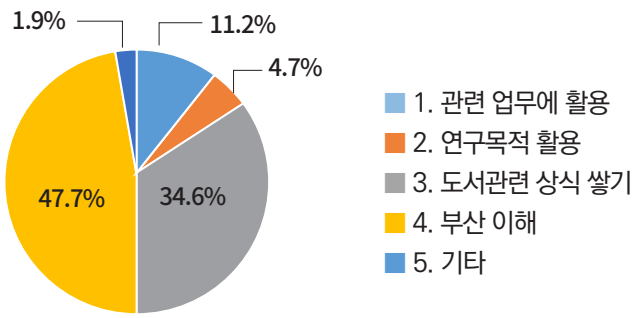
· 부산도시계획정보지 이용목적
– 이용목적은 '부산을 잘 알기 위하여'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도시계획 관련 상식 습득'이 34.6%, '관련 업무 활용' 11.2%, '연구 목적 활용'4.7% 순으로 나타났고, 82.2%가 이용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부산도시계획정보지 구성
– 정보지 구성은 응답자의 85.0%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정보지 구성사항 중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알기쉬운 도시계획'이 27.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정책동향'20.7%, '위원회 심의결과'14.3% 순으로 나타났음.
· 부산도시계획정보지 개선사항
– 개선사항은 '용어나 자료에 대한 추가설명'이 58.9%로 가장 높았으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의견이 14.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 문항별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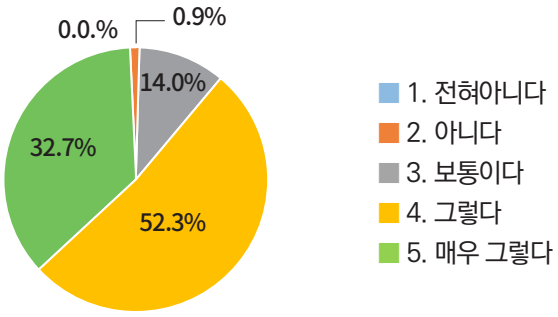
1. 부산도시계획정보지는 다양한 도시계획관련 정책동향 및 공공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계획정보지가 귀하의 업무수행(또는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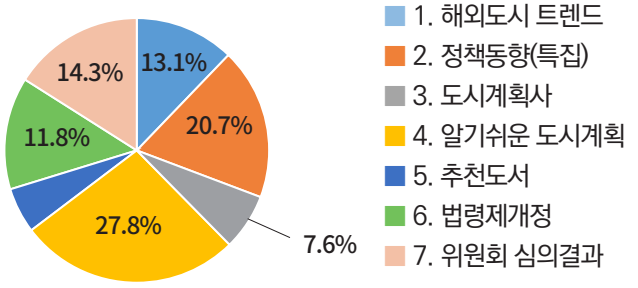
2. 부산도시계획정보지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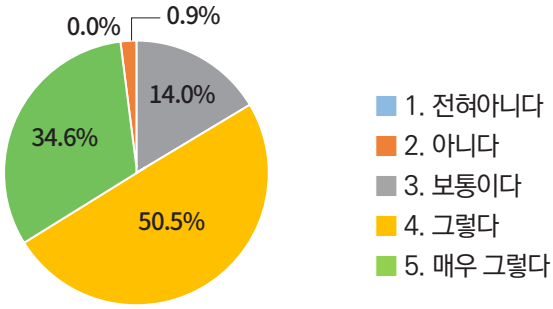
3. 부산도시계획정보지는 해외도시 트렌드, 정책동향, 알기쉬운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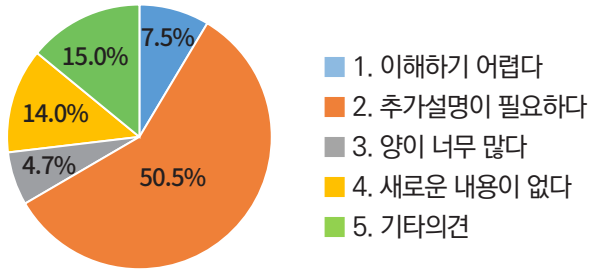
4. 귀하가 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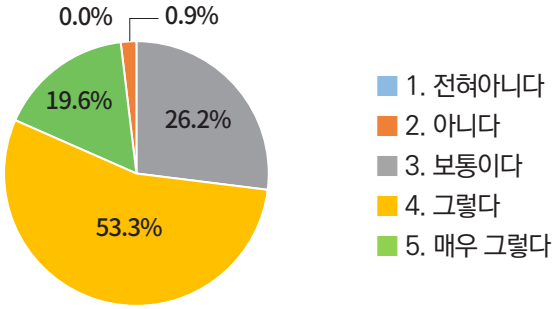
5. 부산도시계획정보지는 관련 도시계획 정책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산시의 도시계획 주요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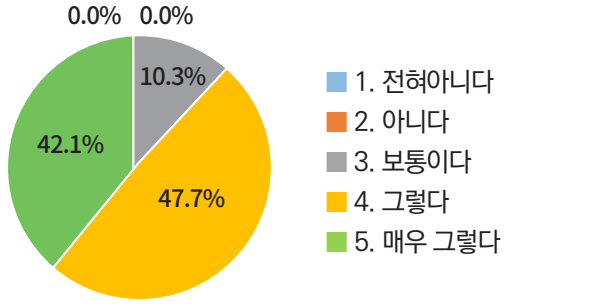
6.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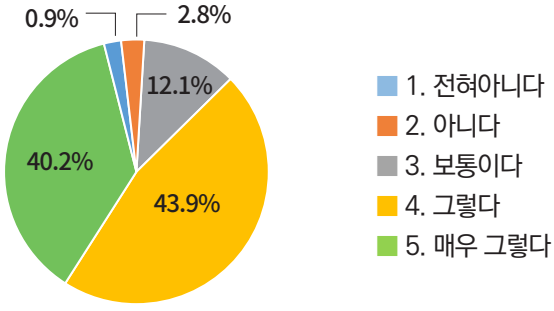
7. 부산도시계획정보지가 해외의 최신 트렌드 등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이 최근의 국·내외 도시계획 소식을 잘 다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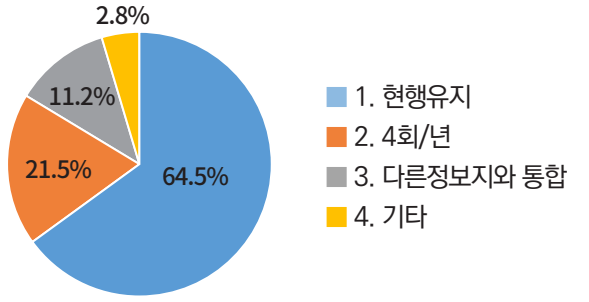
8. 부산도시계획정보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과 표 등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림과 표의 사용이 도시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9. 부산도시계획정보지는 책자 외에 부산시청 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파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도시계획정보지 제공 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10. 부산도시계획정보지는 내용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정보지 발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해주신 점을 개선하여 더 좋은 도시계획정보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과 해양수도 부산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020 시민계획단 모집



20년뒤 부산의 미래상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계획할 **100인의 시민대표를 모집**합니다.

* 020 (Online To Offline)

시민계획단 운영 개요

- 운영방식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SNS를 이용한 시민계획단을 병행(Online To Offline) 운영
- 활동일자
  - 비대면운영(Online) 화상 회의개최(1회) : 2020년 8월 8일 (토, 오후 2시 ~ 6시)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장소
  - 대면운영(Offline) 회의개최(4회) : 2020년 7월 25일, 8월 22일, 9월 5일, 9월 19일 (토, 오후 2시 ~ 6시)
    ⇒ 7. 25(토)은 도시계획 아카데미 특강 및 온라인 토론 운영방법 교육시행
- 주요 안건 : 2040 부산의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 주요 정책이슈 등에 대한 의견제시

시민계획단 모집·선발

- 모집인원 : 100명(무보수 명예 시민계획단)
- 지원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0. 6. 24 ~ 7. 14. (20일간)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http://www.busan.go.kr)를 통해 신청서 입력
  - 또는 이메일, 팩스,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이메일) phk4010@korea.kr / (FAX) 888-2449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0층 도시계획과
- 신청서류 : 홈페이지 참조 (설문서 작성 필수)
- 결과발표 : 2020년 7월 중 개별통지
- 활동혜택 : 제4기 시민계획단 위촉장 수여, 도시계획정보지 제공

올해 제6기 도시계획 부산시민아카데미 행사는
시민계획단 특강으로 개최됩니다!
(7월 25일 오후 2시-6시 /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특강 1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
"천천히 재생"

정석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특강 2



나와 우리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권태정 교수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온라인 시민계획단은 2021. 12월말까지 수시 운영되므로,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시청 도시계획과 (☎888-2435, 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